

## 1. 연구 배경 및 목적

IFRS17이 시행된지 올해(2026년)로 4년차를 맞이하였다. 시행 첫해인 2023년은 IFRS17 도입에 따른 우려를 씻어내고 자본과 이익이 증가하였으나 얼마 있지 않아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계리 가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에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보험 및 고금리상품 해약을 가정 산출기준 등을 제시<sup>1)</sup>하였다. 2024년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정 적용 방안을 마련<sup>2)</sup>하였다. 또한 시장의 자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현황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영공시 개선 등으로 노력하였다.

2025년은 건전성 제고 TF를 통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sup>3)</sup>하였다. 금융감독이 제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은 기본 원칙을 통해 계리가정을 수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관리 감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험부채 최선추정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손해를 가정 및 사업비용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보험산업은 보험부채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노력 중 시장참여자들이 접할 수 있는 공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보험회사의 공시는 IFRS17에 따른 일반공시, 보험업법에 따른 경영공시로 구분되며 두 가지 공시 모두 보험부채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IFRS17을 도입한 해외 국가의 공시 현황과 국내 공시 현황을 비교하여 보험산업의 경영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5. 31.),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1. 17.), “신회계·자본제도(IFRS17·K-ICS)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 1. 21.),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 2. 선행연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감독 환경의 변화와 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는 제도의 도입 논의 단계에서부터 시행 이후의 실증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① 일반회계(IFRS17)와 감독회계의 관계 및 공시 체계 정립, ②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재무 영향과 가치경영 과제, ③ 공시자료의 유용성 및 비교가능성 검증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 가. 국내 선행연구

국내 선행연구는 제도 도입 준비기의 공시 체계 설계 논의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실제 산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무적 영향 분석과 다양한 이익 지표의 정보 유용성 검증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우선, 리스크 중심 공시 체계의 필요성과 이원화된 회계 체계 하에서의 감독회계 역할 정립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었다. 금융권의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세 속에서 류건식 외(2006)는 규제를 보완하는 시장 규율로서 공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감독당국 주도의 로드맵 수립을 제안하였다. 이어 장동식 외(2012)은 유럽의 Solvency II 체계를 분석하여,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리스크의 특성 및 규모와 자본 적정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의 핵심임을 역설하였다.

IFRS17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연구의 초점은 일반회계(IFRS17)와 감독회계 간의 역할 설정으로 구체화 되었다. 노건엽 외 3인(2022)는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의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등 계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노건엽(2025)은 자율성이 강조되는 IFRS17 하에서도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제안하며, 해외 주요국의 감독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 시행이 보험회사에 미친 재무적 영향과 이에 따른 가치경영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제도 시행 전, 김준현 외 2인(2020)는 정보 생산자인 보험회사 실무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위험조정(RA)

이나 보험계약마진(CSM)과 같은 새로운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것임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제도 시행 이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노건엽 외 2인(2023a)는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 변동성 확대와 발생주의 수익 인식 전환이 과거의 외형 성장(물량) 중심 경영을 수익성(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 노건엽 외 2인(2023b)는 2023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IFRS17 전환 시 자본총계는 증가하지만 당기순이익과 CSM의 변동성 또한 크게 확대됨을 확인하고, 내재가치(EV)와 같은 보완적 성과지표의 공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준호 외(2023) 역시 부채 시가평가 효과를 분석하며, 회사별로 상이한 계리적 가정 사용이 변동성의 주원인임을 지적하고, 가정 변경 효과에 대한 상세한 주석 공시가 전제되어야 정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IFRS17 도입 후 공시자료가 자본시장에서 가지는 정보 유용성 및 가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변승무 외(2025)은 IFRS17 도입 후 보험회사 재무정보의 추가 설명력이 IFRS4 시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실증하여, 새 제도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함을 입증하였다.

특히 조석희(2024a, 2024b, 2024c)는 3편의 시리즈 연구를 통해 회계 정보의 상호보완성을 입증하였다. 조석희(2024a)는 현금흐름 정보 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전환 이후에도 ‘수입보험료’ 및 ‘영업현금흐름’ 정보가 여전히 높은 가치 관련성을 가짐을 밝혔고, 조석희(2024b)는 감독회계상 자본 항목인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정보임을 규명하여 감독회계 공시의 보완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조석희(2024c)는 영업 손익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제도 시행 후 보험손익의 가치 관련성이 투자손익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실증함으로써 IFRS17이 보험 본연의 이익 정보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 나. 해외 선행연구

해외 선행연구는 IFRS17 도입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 간·회사 간 비교가능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2024)은 유럽 보험회사들의 IFRS17 최초 적용 재무제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새 제도가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를 과거의 블랙박스(Black Box)에서 투명한 열린 책(Open Book)으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할인을 적용이나 위험조정 산출 등 핵심적인 계리적 영역에서 회사 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비교가능성이 여전히 저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er Hoeven et al.(2024) 역시 유럽 보험회사들의 2023년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된 민감도 분석과 부채 변동내역이 정보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지적하며 공시의 구체성 부족을 비판하였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2024) 또한 첫째 공시 검토를 통해, 많은 보험회사가 '대체 성과지표(APMs)'와 GAAP 수치 간의 조정 내역을 불충분하게 공시하거나 상투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유사한 비교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PwC(2024a)의 호주 보험시장 분석과 PwC(2024b)의 싱가포르 보험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공시 사항 외의 영역에서 회사 간 공시 수준의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방법론의 선택이나 핵심 가정 공시에서 다양한 양태를 보였으며, 이는 글로벌 기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회사별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Carvalho and Carvalho(2024)는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 대안으로, 확률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발생사고부채(LIC)와 위험조정을 산출하고, 이를 주석에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양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외 선행연구들은 공시 제도의 정착이 단순히 기준서의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시 관행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 다.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국내 선행연구의 흐름을 종합하면, 제도 도입 준비 단계의 논의에서 시작해 초기 재무 영향 분석을 거쳐 최근에는 정보 유용성 검증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특히 최신 연구들은 보험손익 등 IFRS17 핵심 정보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한편(조석희 2024c), 계리적 가정에 기인한 이익 변동성이나 발생주의 회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감독회계 정보의 상호보완적 활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조석희, 2024a; 조석희 2024b).

기존 문헌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데이터를 단편적으로 분석하거나 도입 효과를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준호 외, 2023; 노건엽 외 2인, 2023b).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 및 가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는지 규명한 실증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된 국내 제도 환경을 반영하고 유럽의 선진 공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공시 품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다. 나아가 IFRS17 체제 안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영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 3.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는 국내 감독회계 공시와 일반회계 공시를 살펴보고, 해외 IFRS17 공시 현황과 비교를 통해 국내 공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II장에서는 먼저 국내 공시 현황을 감독회계공시와 일반회계공시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후 제III장에서 해외 공시 현황을 전체 유럽 사례를 살펴보고 이후 영국, 독일 그리고 캐나다의 대표 보험회사 사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IV장은 국내 보험회사 공시 사례와 해외 보험회사 공시 사례를 비교한 후 마지막으로 보험산업 경영과제를 제시한다.